

“역습엔 역습... 지피지기 通했죠”

日, 김성연 대비해 대표 선수 교체
김, 업어치기 대신 메치기로 승부수
“내년 U대회도 시민들에 선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영화 ‘명량’에서나 나올법한 대사를 김성연(23·광주도 시철도공사)에게서 들었다. 상대방과 자신의 장단점 철저히 분석해 이를 역이용한 게 금메달의 비결이다.

김성연(세계랭킹 6위)은 지난 2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유도 70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아라이 치즈루(세계랭킹 11위)를 어깨로 메치기 절반으로 제압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성연은 아이즈한 카디르베코바(키르기스스탄)와의 2회전에서 경기 시작 34초 만에 누르기로 한판승을 거두고 4강 진출했다. 이어 몽골의 쉐드야우시 나란자르갈(세계랭킹 23위)에게 경기 종료 12초를 남기고 절반을 빼앗은 뒤 종료 직전 상대의 반칙패를 유도하며 결승행 티켓을 움켜쥐었다.

결승전에서 ‘라이벌’ 아라이와 맞붙은 김성연은 초반부터 강하게 공격을 시도하다 경기 시작 44초 만에 어깨로 메치기 기술로 절반을 따냈다. 이후 아라이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아시안게임 데뷔전을 금메달로 완성했다.

김성연의 금메달은 전술과 학습의 승리였다.

김성연의 맞수는 처음부터 ‘아라이’였다. 일본이 대표 선발전 1위를 제치고 2위 아라이를 국가대표로 내세운 건 김성연 때문이었다. 김성연에 유독 강한 아라이를 내세운 것이다.

김성연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라이를 연구했다. 자신의 주무기인 업어치기 발기술에 대처하는 아라이를 연구해 이를 역이용하는 전술을 짰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경기 시작 44초, 업어치기 기술을 역이용해 어깨로 메치기를 구사했다. 적중했다.

김성연을 지도하고 있는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은 “한국 유도 금메달 중 가장 완벽한 금메달이었다”면서 “성연이와 코치진이 일본의 아라이를 많이 연구했다. 성연의 기술을 잘 아는 아라이를 역이용했다. 공격하다보면 한순간 기회가 오고, 이를 놓치지 않으면 금메달이라고 다독였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김성연은 대회 때마다 너무 긴장한 탓에 기량을 제대로 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아라이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순천 출신으로 전남체육·전남체고·용인대를 나온 김성연은 올해 신생팀인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등지를 틀었다. 열악하지만 스승과의 의리로 고향팀을 선택했다. 하지만 힘겹다. 지원이 너무 열악한 탓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브랜드 마케팅은 책임질데니 지원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연은 “내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브라질 올림픽에서 시민들에게 꼭 금메달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연은 23일 오후 7시30분 여자 유도 단체전에도 또 하나의 금메달을 노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모저모

40세 ‘체조 전설’ 옥사나의 도전

○...여자 체조의 ‘살아 있는 전설’ 옥사나 추소비티나(39·우즈베키스탄)가 다시 한번 위대한 도전에 나섰다.

추소비티나는 22일 여자 기체체조 개인 예선을 겸한 단체전 결승에 출전했다. 추소비티나는 1975년 6월 19일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마흔에 이른 주부 체조선수지만, 기량만큼은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추소비티나는 주종목인 도마에만 출전해 1.2차 합계 14.675의 점수로 북한의 홍은정(15.350점)에 이어 단체전 A조에서 2위를 차지했다.

양궁협, 경기장 미디어석 확장

○...대한양궁협회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탐탁지 않은 지원에 반발해 자구책을 들고 나섰다. 협회는 양궁 개막을 하루 앞두고 22일 인천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의 본선 경기장에 대형 전광판, 미디어석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 대로 뒀을 때 세계 최고로 이름이 난 한국 양궁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본선 양궁장에는 오른쪽에 비스듬하게 대형 전광판이 하나만 설치돼 왼쪽 관중석의 팬들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지난 2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70kg급 결승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이 일본 아라이 치즈루를 누르고 금메달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女 권총 대표팀 金 ‘명중’

김장미 등 3명 25m 1748점 합작

한국 여자 권총 대표팀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사격에서 금메달을 명중했다. 여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이 나왔다.

김장미(우리은행), 이정은(KB국민은행), 광정혜(IBK기업은행)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22일 인천 육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사격 25m 여자 권총에서 1748점을 합작해 금메달을 땀다. 2012 런던 올림픽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김장미가 584점을 기록했고 광정혜가 583점, 이정은이 581점을 보였다.

한국 사격 대표팀은 전날 10m 공기권총에서 김청용(흥덕고)이 2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수집했다. 아울러 4년 전 광저우

에서 동메달을 딴 아쉬움도 지워냈다.

경기 초반부터 1위로 앞서나간 한국은 3명 선수가 실수 없이 선전하며 선두 자리를 지켜냈다. 중국(1747점)은 간발의 차로 은메달로 밀려났다. 동메달은 1729점을 기록한 인도가 가져갔다.

김장미, 광정혜, 이정은은 본선 3위, 5위, 6위에 올라 8명이 오르는 개인전 결선에도 진출, 2관왕을 노렸으나 모두 메달을 따지 못했다.

김계남(울산여상), 김설아(봉림고), 정미라(화성시청)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여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241.6점을 합작,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이 종목 단체전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한국의 메달은 동색에서 은색이 됐다가 다시 동색이 되는 사상 소유의 ‘실적 반복 해프닝’도 있었다.



22일 인천 육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여자 사격대표팀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장미, 이정은, 광정혜.

/연합뉴스

애초 한국은 중국, 이란에 이어 동메달을 땀다. 중국은 1253.8점으로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듯했다. 그러나 장빈빈이 사후 장비 검사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을 착용했다는 게 발각돼 메달을 잃었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

을 어길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심판들은 긴급회의 결과 장빈빈의 실격 처리를 반복, 중국이 원래대로 금메달을 땀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세계신기록도 인정됐다.

/연합뉴스



北 역도 세계新 ‘번쩍 번쩍’

김은국 62kg ‘금’... 엄윤철 이어 두번째

‘북한 역도 영웅’ 김은국(26·북한)이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북한에 인천 아시안게임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리정화는 여자 58kg급에서 북한 여자 역도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김은국은 지난 21일 인천 달빛체육정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역도 62kg급 A그룹 경기에서 인상 154kg·용상 178kg·합계 332kg을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

김은국은 ‘현역’ 인상 최고 선수에서 역대 최고 선수로 올라서며 기분 좋게 인상 부문을 마쳤다. 1차시기에서 147kg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대회 타이

기록을 세운 그는 152kg으로 무게를 끌어올린 2차시기도 성공하며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다. 3차시기는 154kg을 들어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다.

시지용(중국)이 2002년 세계역도초청대회에서 세운 종전 기록(153kg)을 12년 만에 바꿔놓는 놀라운 장면이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용상에서도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김은국은 1차시기에서 170kg에 성공했다. 174kg으로 무게를 올린 2차시기에서도 바벨을 높이 들었다. 자신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작성한 합계 세계 신기록(327

kg, 인상 153kg·용상 174kg)을 1kg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김은국은 한발 더 나아가 개인 최고인 178kg에 도전했고, 아마저도 들어올리며 합계 기록을 332kg으로 늘렸다.

한편 리정화는 23일 열린 여자 58kg급에서 인상 102kg·용상 134kg·합계 236kg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일 엄윤철, 21일 김은국 등 남자 역도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얻은 북한 역도는 이날 여자 부에서도 금메달을 캐며 세계 역도 강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연합뉴스